

국회보사위원회의
실에서 열린 환경

정감사에서 野黨의원들은 골
프장 농약과 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지며 환경처의 규제능력이
흔을 질다.

朴英澈 李喆鏞의원(平民

들)은 골프장에서 高毒性농약
을 사용해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심지어
인체에까지 해를 미치는데도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
는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처를 부자는『골프
장에 대해서는 인허가 관리
책임을 체육부가 맡고 있고
농약문제는 농림수산부가 관
장하고 있다』고 발췌성 답변
으로 일관.

11. 24. 동아.

許南薰정감사도『골프장은 영
에 있어 농약과 다사용을 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관계부처협의과정에서 환경
처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
도록 애쓰고 있다』고『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환경보존위원회에서도 농약
문제에 대한 환경처의 우려
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논의의 한계를 시인.

李喆鏞의원도 그러나『골
프장. 그러나 이같은 골프장에
많은 골프장 허가를 내주고
골프장업자는 수업을 들으며
많은 조정시설을 보호키 위해
해마다 더 많은 양의 高毒
의 농약을 사용해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이래도 좋은건지
공무원이 아니라 학자의 입
장에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주변.

환경처측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黃明秀의원장등 民自
의원들은 정부부처간 소관사
학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답
변할 것 안할 것을 가려서 하
라』고 정부측을 질타하는 격
하며 오히려 일관.

“대도시 대기오염 질식 상태”



〈4면에서 계속〉

보사위

○... 환경 처에 대한 보사위 감사는 그동안 국회 상임위 등에서 자주 등장했던 각종 오염 문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중복 거론된 탓인지 시종일관 맥빠진 상태로 진행됐으나 이날 저녁 산회 직전 송두호 의원(민자)과 박영숙 의원(평민)의 질의에 대한 허남훈 환경처장관의 답변에 이르러 열기가 고조.

이날 송 의원은 질의를 통해 “환경관리공단 온산사업소가 기준치를 27배나 초과한 중금속 6가크롬 4백11t을 불법 매립했으며 동 사업소가 처리 실적으로 보고한 4천2백94t은 2천5백2t의 명백한 허위보고며 위증”이라고 폭로.

답변에 나선 허 장관은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 “문제가 된 6가크롬은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는 폐기



국회 국정감사 4일째를 맞은 29일 보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환경처 감사에 나서 관계시설을 둘러보며 보고를 듣고 있다.

물로서 매립장에 일시 보관되고 있는 슬러지이며 폐기물의 실적이 현지 수치와 국감 보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업소에서 반입된 양을 모두 처리 실적으로 보고하는 업무 관행 때문”이라고 변명.

그러나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고형화로 처리기로 한 7백47t 중 4백11t은 지난 9월20일 현장 조사 결과 이미 매립지에 없었으며 이

미 기준치 0.5ppm을 초과해 고형화로 처리기로 한 물량을 다시 분석하기 위해 매립장에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

평민당의 박영숙 의원도 동양화학 군산 TDI공장 설립 인가 문제와 관련, “환경처에서는 이 공장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시험 가동시 유해 여부를 조사

한 서울 부산 광주 지방환경청의 현지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

이에 대해 황명수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은 “업무상 위계 질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반대해 공방.

박 의원이 계속해서 “제2의 안면도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장관이 책임지겠느냐”고 추궁하자 허 장관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상공내무 과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군산 TDI 공장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박 의원이 이에 대해 “내일 증인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굽히지 않자 황 위원장은 서둘러 산회를 선포해 일단락.